

사회

“코 곤다”... 때리고 ‘귀뚜라미’ 일차려

상습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전남 611전경대 해체

부대원 99명 전원 전출·징계

경찰이 부대 내 후임자 구타 및 가혹행위 연루 사실(광주일보 2월10일 6면)이 드러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611전투경찰대를 해체했다. 특히 611전경대의 경우 후임 대원 22명이 선임대원로부터 잦은 구타와 욕설, 폭언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10일 선임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적발된 611전경대를 해체했다. 이 부대는 지난달 경찰청이 6개월 미만 신입대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소원수리 결과 대원 22명이 선임자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대 A(20) 수경 등 가해 대원 25명은 사소한 이유를 트집잡아 후임들에 대해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수경은 지난해 11월께 “콩소 코를 곤다”는 이유로 B(20) 상경의 가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C(21) 상경은 후임 대원이 양키 상황을 잘 위주 못하자 이른바 ‘귀뚜라미 자세’(귀를 잡고 ‘앞드려 뻗어’를 하는 것) 일차려를 시키는 등 후임을 괴롭혀왔다. 이밖에 이 부대에서는 선임 대원들의 욕설과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 등이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대원 25명(가해자 겸 피해자 5명 포함)을 타지 방경찰청으로 전출시키고, 피해대원 22명은 연고지 등 본인의 희망지로 발령했다. 나머지 일반 대원 55명도 희망지로 발령하는 등 부대원 99명 전원을 인사조치 했다.

경찰은 오는 15일 전의경 부모모임 회원 등 민간인이 포함된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심사위원회’를 열어 가해 대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지휘 및 관리책임을 물어 전투경찰대장 등 지휘요원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방청에 경감급 반장과 경찰관 4명을 복무점검반으로 편성해 전의경 기강확립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경 1명을 배치해 전의경 고충처리 등 상담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이 최근 시행한 신입 전의경 대상 소원수리 결과 전국적으로 365명이 선임 대원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광주는 후임 전의경 7명이 선임 대원 6명으로부터, 전남은 전의경 42명이 선임 45명으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광주·전남에서 총 4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611전경대의 경우 심각한 구타 등은 없었지만, 폭언이나 욕설 등의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해체 조치했다”며 “가해 대원들에 대한 인권·인성 교육 등을 통해 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교수채용 1명당 1억 뒷돈 성화대 前 총장 법정구속

4억원 받아 챙겨

교수채용을 대가로 4명의 지원자로부터 1명당 1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아 평균 50대 전 대학 총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0일 교수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강진성화대 전 총장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범행을 도운 이 대학 전 사무국장 최모(55)씨와 전 감사실장 조모(54)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총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8년 2~8월 최씨와 조씨를 통해 지원자 4명으로부터 교수 채용을 대가로 총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최씨와 조씨에게 공공연하게 ‘뒷돈’을 받아들 것을 지시한

뒤 자신의 집과 총장 집무실, 커피숍 등에서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사건 외에도 부동산을 학교법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대학 교비 회계에서 36억원을 학교법인으로 전출한 혐의와 거액의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사립대 실질적 운영자로서 교수 임용을 빌미로 4차례나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신성해야 할 대학교수직을 매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수석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중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났지만, 이날 법정구속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241) 김중두



부모 살해 20대 20년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홍환 대법관)는 10일 친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 영암군 영암읍 집에서 아버지에게 뺨을 맞자 아버지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고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26년 전 아버지 병원비 갚습니다”

○자수성가한 40대 사업가가 가난 때문에 병원비를 내지 못했던 아버지의 빚을 26년 만에 갚아 준다.

○10일 전주 예수병원에 따르면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신상환(46)씨가 이날 권창영 병원장에게 “지난 1985년 아버지(75)가 두개골 대수술을 받은 뒤 병원비를 내지 못했으나 예수병원 원목실 반석희 목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병원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신씨는 이메일에서 “늘 가슴 한 구석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새 26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렀다.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는 날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 드리려고 한다”고 언급.

전북취재본부=김영희기자 k0765@

구제역 방제 빙판길 추돌사고 4명 부상 영암 삼호읍

10일 새벽 1시15분께 영암군 삼호읍 구제역 방역초소 인근에서 이모(50)씨의 승합차가 박모(28)씨의 승합차를 추돌해 이씨 등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제역 예방 소독액 살포로 빙판길로 변한 도로를 지나던 이씨의 차가 미끄러지면서 옆 차선을 달리던 박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이상규기자 ish@

변호사비로 예산 전용 혐의

민동석·정운천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하면서 국가 예산을 변호사 자문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고발했던 민동석 외 교통상부 제2차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해빙기 도로 보수

잦은 눈과 해빙기 일교차로 인해 도로 곳곳이 파손된 가운데 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도로팀 직원들이 10일 용봉동 이면도로에서 움푹 꺼진 도로를 보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억대 산양삼 보조금 사기 60대 법정구속

광주지법,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 현 판사는 10일 허위 서류를 꾸며 거액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국

단 화순산 산양삼을 신뢰를 잃었고, 화순군의 보조금 수시역원은 불량한 사람들의 용돈이 됐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지난 2006~2009년 화순군이 추진한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실제 쓰지도 않은 사업비를 쓴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총 1억2300여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진범은 못잡고 미제사건만

목포 여대생 피살 수사... 성폭행 등 12건 해결

목포경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여대생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DNA 분석을 통해 미제사건을 잇따라 해결했다. 하지만, 정작 여대생 피살사건은 오리무중이다.

목포경찰은 지난해 초 여대생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박모(45)씨를 성폭행 우범자로 분류한 뒤 DNA를 채취했다. 경찰은 박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8년 전 강도·강간사건 피해 여성의 품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씨가 사건 발생 3년

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뒤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목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6건·절도 2건·폭력 3건 등 12건의 미제사건을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30분께 목포시 상동 한 병원 뒤편 공원의 배수로에서 발생한 전남 모 대학 4년 조모(여·22)씨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사건 발생 4개월이 가까워지도록 뚜렷한 단서나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신안서 새우잡이 선원

동료에 폭행 당해 숨져

신안에서 새우잡이 선원이 동료 선원에게 폭행당한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1시께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한 선원 숙소에서 박모(4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의 얼굴에서는 외상 흔적이 발견됐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선원 관리원 김모(37)씨에게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신다”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Advertisement for Ariarang House restaurant. Text includes: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이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ww.geumsoojang.com

Advertisement for Hanbitgosi Academy. Text includes: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최강집]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www.hanbitgosi.co.kr